

방호복 속 땀 닦을 틈도 없이...코로나·폭염과의 사투

광주 선별진료소 가보니

방호복 등 보호장구 6개 착용
냉조끼 입어도 잠깐...땀 줄줄
검사 급증 속 대기 줄 200여m
교대할 때 제외하곤 쉴 시간 없어
혈액순환 안돼 저리고 멍들기도
“폭염과 싸우는게 가장 힘들어”

1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200m가 넘는 긴 줄이 섰다. 동구청은 무더운 날씨 때문에 50m 길이의 그늘막을 설치했지만 최근 두 자릿수 확진자가 쏟아지고 밀접 접촉자들이 급증하면서 검사 대기자들의 줄은 그늘막 길이를 훌쩍 넘었다.

이들 사이를 파란색 방호복으로 꽂꽂이 의료진들이 부산하게 오가며 역학조사서와 문진표 등을 나눠주고 있었다.

의료진들 이마에서는 땀이 멈추질 않았지만 이마와 얼굴을 덮은 얼굴 가리개(페이스 쉴드)로 땀도 못 닦고 눈만 깜박였다.

이날 7명의 의료진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1시간 동안 60여명, 하루 500여명의 검체를 채취했다.

15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하려는 대상자들도 평소와 견줘 두 배이상 늘었다.

오전시간의 경우 1주일마다 선제 검사를 받는 보호교사, 유흥업소 종사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이 몰리면서 평소에도 선별진료소가 북적이는데, 광주시가 최근 수도권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검사를 권하면서 진료소를 찾는 발길이 부쩍 잦아졌다.

무더위에 코로나 검사자들까지 급증하면서 의료진들은 ‘이중고’를 합격해 버려내는 형편이다. 줄을 잇는 검사자들 때문에 교대할때를 빼면 쉬는 시간이라곤 검사를 마친 시인과 다음 검사자들 들어서는 10여초가 유일하다.



광주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15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방호복 안에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은 의료진이 착용해야 할 보호장구.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날 광주 낮 최고기온은 한때 34.9도까지 치솟았다. 여기에 레벨 D 전신방호복, 덧신, 비닐 장갑, 마스크, 헤어캡, 페이스 쉴드 등 6개를 갖춰 입고 나면 가만히 있어도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다.

공기중으로 감염원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선별 진료소 내에서는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아 송풍기만으로 무더위를 견뎌야 하는 실정이다.

얼음조끼가 제공되지만 폭염에는 10분만 지나도 ‘뜨듯한 물 조끼’ 나 다름 없고 움직이는데도 불편해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의료진들 하소연이다.

동구 선별진료소 김고은씨는 “방호복 안에 반바지, 반팔 티셔츠 등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근무하지만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폭염과 싸우는 게 요즘 가장 힘들다”고 했다.

마스크와 얼굴 가리개는 무더위 뿐 아니라 소통

에도 지장을 준다. 잘 들리지 않는 시민들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목소리를 높이다보면 끝날 때쯤에는 목이 아파온다는 게 진료소 의료진들 얘기다.

무더위에 방역 글러브에서 손을 빼지 않고 하루 종일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경우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아 팔이 저리고 멍이 들기도 한다.

북구선별진료소에서 하루 1000명 가량 검사를 진행하는 간호사 김상씨는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외하면 몇시간 깨 같은 자세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더위에 쓰러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코로나 검사를 위해 검체를 채취한 시민들은 1월 10만 4730명, 2월 8만 5094명, 3월 8만 4747명, 4월 9만 5272명, 5월 10만 9775명, 6월 8만 1647명에 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구속기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A(28)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B(29)씨 등을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3~10월 중국 강소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7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먼저 전화

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며 거짓말을 하고 검사 사칭 조직원이 전화를 넘겨받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지난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해 위증 혐의도 있다.

애초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한 데다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기미수 등으로만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총책을 특정하고 법적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해 피해 금액을 밝혀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학동 참사’ 다윈이앤씨 현장소장 구속

철거작업 과정 안전관리 소홀
백솔건설 대표 등도 구속 기소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한 책임으로 다윈이앤씨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1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중근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A(50) 다윈이앤씨 현장소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 및 석면 철거작업 과정에서 관련 법규 등과 다르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술한 안전 관리로 건물 붕괴사고를 유발, 1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윈이앤씨는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

일반건축물 철거공사를 맡은 한솔기업과 이면계약을 맺고 일반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석면철거공사 계약을 따내 면허가 없는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물해체계획서와 다른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건물 붕괴 사고를 유발했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한편,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장운영)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백솔건설 대표 B(47)씨와 한솔기업 현장소장 C(28)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광주·전남 경찰청

광주·전남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한 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시단속할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3월부터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그러나 여름 휴가철 타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술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음주사고 다발지

역, 광주 근교 여름 휴가철 피서지로 이동하는 진·출입로 등에서 비집속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 단속을 펼친다.

전남경찰청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주변, 유흥가, 주요 연결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옮겨가는 단속과 도내 일제 음주단속도 주 1회 이상 병행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예정이다.

지자체 등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인식하고 성숙한 문화 정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